

소와 함께 한 세상 이야기

국립민속박물관서 3월 2일까지



‘화도’ 8폭중 1폭에 그려진 목우사.

기축년 한해, 우직한 소의 심성을 담아 보자.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신광섭)은 소머리를 맞아 3월 2일까지 ‘소와 함께 세상 이야기, 우행(牛行) 특별’을 연다. 한국의 생활 문화 속에 나타나는 소의 친근한 이미지와 일상에서의 다양한 기능 및 역할을 소와 관련한 자료 전시를 통해 조망한다.

불교에서 소는 깨달음을 상징하는 동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조계종 중흥조인 자 <초발심자경문>을 쓴 보조지승 스님의 호가 ‘목우자(牧牛子)’였고, 만해 한운운 선생이 말년 동안 머물렀던 자택의 호 또한 ‘심우장(審牛莊)’이다. 사람의 진면목을 소에 비유해 마음 닦는 과정을 10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심우도(心牛圖) 역시 수행자의 구도행장을 잘 묘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1년 주기 농경생활 풍경을 그린 12폭 ‘경지도(耕織圖)’를 비롯해 풍요를 기원하는 민속학적 농경의례인 황해도 소놀이굿의 소탈 및 각종 공예품 등 소의 모든 것을 총 망라한다. 운승하고 성실하며 끈질긴 소의 기질을 시간과 공간에 투영된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접근했다. (02)3704-3152

가연숙 기자



무채색 도시에 푸른 연두빛 감성음악 전하고파 불교계의 보아 엘리스블루 싱글앨범 ‘To U’ 발매

“찬불가 현대화 위해 대중가요 불러요”



“제 후원자요? 든든한 모니오빠죠-”

BBS불교방송 ‘붓다의 노래’ 녹음 스튜디오에서 만난 엘리스블루(aliceblue) 강혜운(25)은 해사한 미소를 지으며 재기발랄한 입담을 선보였다. 매주 일요일 새벽 1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 ‘불교음악 감상실’ 코너를 2년째 진행하고 있는 그녀는 불교음악계의 아이돌스타 ‘보아’로 통하고 있었다. 든든한 ‘모니 오빠’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일컫는 그만의 애칭. 최근 싱글앨범 ‘To U’를 발매하고 서서히 대중음악의 바다를 향해 할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의 일상을 엿보았다.

“찬불가 가수로 2006년도에 데뷔했어요. 지허 스님(전수사 주지)과 ‘패랭이꽃과 나그네’ 음반을 발매하고 5000장의 음반이 절판되기까지는 물심양면으로 관심 써 주신 지인들 도움이 큼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능분야에 유감없이 재능을 발휘했던 그가 찬불가와 인연을 맺은 것은 풍경소리 이종만 선생의 권유 때문이었다. 채플을 배워야 하는 예술고등학교 학생 시절 ‘왜 불교음악은 찬송가만큼 재미가 없을까?’라고 항상 의문을 품어왔다. 인도불교를 전공하고 찬불가 마니아까지 지니 한 어머니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

교음악감상실(sambori.com)을 통해 접한 찬불가 역시 명상음악이나 동요, 트로트와 같은 한정된 장르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이 안타까웠다. 이로써 청년 불자가 부재한 한국불교의 침체 원인을 알게 된 이상 누군가 해야만 했던 찬불가의 현대화를 선도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다.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군포교 활동하잖아요. 군부대에서만큼은 호리 선배님보다 인기가 많을 걸요?”

공군교육사령부를 비롯해 연주소, 백마사, 봉화사가 위치한 각 육군사단에서 위문 공연을 펼치는 그의 의지는 열성에 가깝다. 포기라는 단어를 싫어해 고려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재학중인 학생 신분에도 충실하면서, 정규앨범 제작뿐만 아니라 방송 활동까지 펼치는 그는 하루 24시간도 짧기만 하다. 부족한 잠을 줄여서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는 발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들이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진의 불꽃을 태우며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부처님이 저를 예쁘게 봐주고 계신 것이 틀림없어요. 도신 스님은 지금의 찬불가 환경이 조성되기까지 걸음마 떼는 데만 10년이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에 비하면 저는 2년 만에 뛰어 놀고 있는 셈이죠.”

이번에 발매된 싱글앨범 ‘To U’는 모던락과 서정적인 팝발라드 곡으로 완성된 총 4트랙으로 구성됐다. 앨범 타이틀 곡 ‘If U Luv me(만약 나를 사랑

해 준다면)’는 前 랩톱피쉬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인 김성근 곡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영원을 즐겁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정적인 감성으로 회색빛 무채색의 도시에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감성을 전하고 싶다는 엘리스블루. 대중음악 시장에 첫 싱글 음반을 내놓은 그의 포부는 당차기까지 하다.

“음반 시장이 어렵고 가수 활동도 우여곡절이 많다고들 하지만 저는 대중가수로 유명해질 거예요. 그래야만 찬불가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찬불가를 부르는 젊은 가수로서 무대에 오르면 음악의 열악함이나 홀대 속에 단 한 번도 절망을 느끼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 해야만 했던 일에 도전했고 그 길을 걷는 이상 최고가 되고 싶다고 발원 해본다.

“저녁 시간에 조계사에 들러 부처님 전에 기도하며, 저는 사실 가수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그 때마다 부처님은 항상 같은 답을 주셨죠.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라구요.”

때때로 어르기도 하지만 변함없는 의지를 북돋아 주는 부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찾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엘리스블루 강혜운. 청년 불자들에게 향기 가득한 연꽃의 소리를 전함으로써 마음의 안식을 나누는 일이라면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다짐한다. (02)322-2194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불교TV서 만나는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3월 14일까지 초기불교-정신의학 총 망라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에서 구급 13일 주최한 학술연찬회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가 불교TV에서 총 27회에 걸쳐 방영된다.

△초기불교에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 △중관·유식불교에 허인섭

교수(덕성여대) △선불교에 김진무 교수(동국대) △서양철학에 박찬국 교수(서울대) △정신의학에 김중주 원장(김중주 신경정신과의원) △심리학에 권석만 교수(서울대) △생물·면역학에 우희종 교수(서울대)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학술연찬회에 맞춰 교재로도 발간된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는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이미 방영된 주제는 불교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02)720-3629

가연숙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 구독신청·기사제보 | 02-2004-8200

회차	방영일시			내용
1	1. 12(월) 24:00	1. 15(목) 19:30	1. 17(토) 14:30	초기불교
2	1. 19(월) 24:00	1. 22(목) 19:30	1. 24(토) 14:30	유식·중관불교
3	1. 26(월) 24:00	1. 29(목) 19:30	1. 31(토) 14:30	선 불 교
4	2. 2(월) 24:00	2. 5(목) 19:30	2. 7(토) 14:30	서양철학
5	2. 9(월) 24:00	2. 12(목) 19:30	2. 14(토) 14:30	정신의학
6	2. 16(월) 24:00	2. 19(목) 19:30	2. 21(토) 14:30	심 리 학
7	2. 23(월) 24:00	2. 26(목) 19:30	2. 28(토) 14:30	생물·면역학
8	3. 2(월) 24:00	3. 5(목) 19:30	3. 7(토) 14:30	종합토론
9	3. 9(월) 24:00	3. 12(목) 19:30	3. 14(토) 14:30	종합토론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원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택 -

돌고래 슈퍼 에너지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otec.com

하늘의 기운, 신의 승결, 조상의 지혜
부적! 이제 대용품으로는 안된다

槐 槐 黃 黃 紙 紙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제품 괴황지는 왜나무(일명 귀신나무)의 꽃과 열매(풍갈은것)를
당년 7월7(전삼일, 후삼일)에 소승이 직접 채취(강원도 영월)하여
그늘에 잘 말린후, 동지날(전삼일, 후삼일)에 즙을 내어 그물로
9번 순수 한지에 물을들여 건조시키는 까다로운 물건입니다.
작업시에 발생하는 역한, 냄새와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가정에서는 제작하기 어렵고 그 때문에 대용품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최저품질인 창호지로 그 용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승은 옛 선사님의 비법 그대로 순수 나무로 수작업한 전주한지를
업선, 정확히 9번 물을들여 건조하였음을 부처님의 제자로서 인정하며,
많은 불망이 한꺼번에 제작되지 못하는 점을 양지하시어 미리
주문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주문처: 전북 장수군 계북면 농소리 589번지 동원암
판공함장 (063)353-1232 / 010-6229-0108
동원: 507079-51-012924(예금주:이정주)
E-mail: m3531232@hanmail.net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 넓이 20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잡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입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 대한불교(禪)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대인불안 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층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취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 맞춤형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제)
-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文佛 김철희 박사 직접지도

-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문)
-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 대한응변 중앙회 회장 역임

문의 및 신청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